

“어쩌다 이 지경까지...” 자치단체 뒷돈 거래 실태

월급 80만원 일용직 되려고 3천만원 뇌물? 일정기간 지나 정규직 전환 공공연한 비밀

사무관 승진에 3천만원... 공사 발주 대가는 대부분 수익원대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의 인사, 공사 관련 ‘뒷돈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대부분 공사 수주나 채용·승진을 대가로 단체장의 측근 또는 간부 공무원이 돈을 챙겼으며, 더러는 단체장이 직접 금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인사·공사는 사실상 단체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검찰과 경찰은 ‘검은 돈’이 오간 사건은 직간접으로 단체장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사 청탁을 대가로 수익원을 받은 전완준 화순군수의 선거참모 2명이 지난 1일 광주지검에 구속됐다. 이들은 일용직 등 화순군청 공무원 7명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1인당 3000만~4000만원씩 모두 2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주변에서는 월 급여 80만원 정도의 일용직들이 채용을 위해 3~4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을 제공한 것은 향후 가능성 등 정식

직원으로 전환 등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이같은 이면계약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2일 돈을 주고 채용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일용직 공무원 6명에 대해 계약해지했다. 전주인 광주시 서구청장은 지난해 9월 집무실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오모씨가 준 3000만원을 임모 국장을 통해 받는 등 부하 직원 2명에게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역대 뇌물을 받은 광주시 광산구청 환경미화원 장모(38)·박모(44)씨 등 광산구청 환경미화원 2명도 지난 4월 뇌물취득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장씨 등은 지난해 7월 환경미화원 채용 알선을 대가로 류모씨로부터 4100만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총 1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준 이들이 실제 채용된 점을 중시, 뇌물이 구청 고위간부나 뒷선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충식 전 해남군수는 지난 3월 서울의 경관조명업체 (주)나이토피아가 해남군에서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수하도록 돕고 1억 50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공사 수주와 관련해 3개 업체에서 모두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오현섭 전 여수시장도 경관조명사업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연락두절 상태다. 여수시는 ‘야간경관조명 사업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여수시 전 김모(여·59)국장이 업무로부터 받은 3억원 중 1억원을 오시장의 측근인 주모씨에게 건넸으며, 주씨는 이 돈을 여수시의 원 10여명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일봉 전 광주 남구청장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모 전력회사 대표로부터 35차례에 걸쳐 1억14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남구청 공무원 체모(41)씨로부터 황일봉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황 전 청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흥겨움 2배... 장애우들의 사물놀이 3일 오전 조선포서서 열린 '제11회 광주시 지적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서 광주장애인복지협회 북구위원회 회원들이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주인 서구청장 징역 3년 구형 부하직원에게 승진 대가 돈 받은 혐의

광주지검 특수부(김재주 부장검사)는 2일 부하 직원에게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주인(62)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형

사 4부(정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인사비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거나 구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모(56·4급)씨에게는 징역 1년, 승진 대가로 돈을 준 오모(44·5

급)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과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전 구청장이 몰려날까 생각도 했지만, 선거에서 전폭적 지지를 해준 구민의 입장을 생각해 사퇴하지 않았다”며 “열심히 구청을 꾸려왔지만,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구청장은 이와 별도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8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었다. 뇌물과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모두 오는 7일 오전 열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백도 무단침입 낚시 낚시꾼 등 7명 검거

여수해양경찰은 2일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문도(48)씨 등 낚시꾼 6명과 이들을 실어나른 여선 선장 정모(40)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이날 새벽 3시40분경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접한, 1시간30분간 선상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백도는 문화재청장의 인도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으며,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는 수산 및 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 해경은 물 들어 이날 현재 백도에 무단 침입한 낚시꾼과 선장 등 모두 18명을 불잡았다.

6월 모의수능 'EBS 효과' 미미

채점 결과 발표...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

지난 10일 치러진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는 'EBS 교재 연계율을 50%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출제됐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채점 결과 EBS 교재 연계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인 난이도가 작년 본 수능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EBS 교재를 철저히 '마스터'한 상위권 학생에게는 체감 난도가 낮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작년 6월 모의평가를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아진 것은 EBS 연계효과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자평했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에서 EBS 교재 연계율을 60%, 11월 본 수능에서는 70%까지 높일 방침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EBS 교재 밖에서 출제된 고난도 문항이 등급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유웨이중앙교육은 6월 모의수능이 작년 본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다고 전해한 뒤 EBS 수능교재를 집중 학습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중하위권 성적대 학생들은 EBS 교재 개념을 익히고 꾸준한 풀이를 통해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6월 모의평가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도 빼놓지 말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또... 가정집 피한 침입 초등생 성폭행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대구에서 방과후 혼자서 집을 보고 있던 초등학생 6학년 어린이가 피한 집에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1일 오후 5시 13분경 “1시간

전 중 대구 달서구 성당동 A(13·초등 6)양의 집에서 A양이 나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한 사람은 평소 결혼가정 자녀를 돌보는 일을 맡고 있던 사회복지사 이모씨로 알려졌다. 이씨는 “A양

이 집에서 혼자 컴퓨터로 음악을 듣고 있던 중 어떤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말해 곧바로 112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진술을 근거로 범인이 키 1m70cm 가량에 검정색 티셔츠 차림의 용의자 검거에 나섰다. /연합뉴스

장흥~제주 카페리로 기상악화 첫출항 취소

장흥~제주간 쾌속선 '오렌지호'의 첫 출항이 기상악화로 취소됐다. 2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날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 노력항과 제주 성산포항을 오가는 오렌지호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항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남해 전 해상에 안개 주의보가 발표되면서 쾌속선 오렌지호의 첫 운항이 취소됐다. 오렌지호는 이날 오후 3시 승객 570명을 태우고 출항할 예정이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2일 오후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에서 제주 성산포를 오가는 쾌속 카페리 '오렌지호'가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항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기상악화로 첫 출항은 취소됐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작년 전염병 환자 전년비 10배 증가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전염병 환자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전염병감시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을 분석 정리한 '2009 전염병 감시연보'에서 전염병 보고환자는 모두 78만2천757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천576명이 전염병에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2008년 전염병 환자 7만941명(인구 10만명당 144명)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신종플루 유행으로 신종플루 확진 감염자가 70만6천911명이나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신종플루는 전염병 신고건수의 90.3%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 신종플루 발생 이후 1년간의 임신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356만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50만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종플루에 이어 결핵이 3만5천845명(신고건수의 4.6%), 수두 2만5천197명(3.2%), 유행성이하선염 6천399명(0.8%), 쯤쯤가무시증 4천995명(0.6%)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연합뉴스

30년전 빼앗긴 교사 꿈 이뤄질까 아랍회 사건 피해자 박해전씨 복직 신청

군사정권에서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받아 교단에서 쫓겨났던 중학교 교사가 30년 만에 복직을 신청, 교사의 꿈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5·18 직후 신군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것이 발단이 돼 '아랍회'라는 가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 받았던 박해전(55)씨. 박씨는 2일

“지난달 24일 관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를 찾아가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송실대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사립학교인 서울 용문중학교에서 임시교사(현재의 기간제 교사)로 도덕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일어났다. 박씨는 동료들과 5·18 당시 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발단이 돼 구타와 물고문 끝에 기소됐고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월~10년을 확정받았다. 박씨 등은 2007년에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 결정을 권고하면서 재판이 이뤄져 작년 5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그의 복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3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는데 박씨가 당시 사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해당 학교뿐 아니라 교육청에도 남아있지 않아 '교사신분'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연합뉴스

해양환경 저해사범 서해해경 153건 적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기름 등을 불법 배출한 해양환경 저해사범 153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이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해양오염행위 15건, 무규정 위반 1건, 과태료 위반 19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8건은 생계형 영세어민 등 경미한 사항으로 분석됐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내가 모시는 신 목욕” 아내 폭행

○광주동부경찰은 2일 자신이 모시는 ‘신’을 욕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김모(43)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밤 9시20분경 광주시 동구 산수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들도 보호해 주지 못한 게 신이냐?”라고 아내(44)가 따지자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 ○김씨는 아들이 차광대를 하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온 아내가 판판을 준 뒤 신내림을 받게 한 보살의 집에 찾아가 행패 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났는데, 경찰에서 “(아내가) 평소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가”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2분 달뜨기 23시 26분
해질 19시 51분 달잠 11시 26분

우산 챙기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온 후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다.

광주	비온뒤 맑	23/29℃
목포	비온뒤 맑	22/26℃
여수	흐리고 비	22/25℃
완도	흐리고 비	22/27℃
구례	비온뒤 맑	23/29℃
해남	흐리고 비	22/27℃
장흥	흐리고 비	22/27℃
고흥	비온뒤 맑	22/26℃
순천	흐리고 비	23/28℃
영광	비온뒤 맑	23/28℃
진도	비온뒤 맑	22/27℃
전주	비온뒤 맑	23/29℃
남원	비온뒤 맑	22/27℃
축산도	비온뒤 맑	20/22℃

지역	종량	파고	지외선지수	식물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1.5m	☀	🍌	☹

지역	종량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목포 06:01 11:33	18:30 23:39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여수 00:38 06:59	13:08 18:54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일)	5(월)	6(화)	7(수)	8(목)	9(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3/30	23/29	22/29	22/29	22/29	22/30